

부안 줄포 박소녀무속조사 (扶安 茁浦 朴少女巫俗調査)

李 東 永

(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 學藝研究士)

目 次

- | | |
|------------------|----------------|
| 1. 調査目的 | 5. 朴少女의 巫儀式 音樂 |
| 2. 調査經緯 | 6. 朴少女의 巫儀式 舞踊 |
| 3. 朴少女의 巫儀式 傳承過程 | 7. 結論 |
| 4. 朴少女의 巫儀式 節次 | |

1. 조사목적(調査目的)

무의식(無意識)은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우리 민족(民族)의 생활(生活)과 관련되어 전승(傳承)되어 내려오면서 민간신앙의식(民間信仰儀式)의 주류(主流)를 이루어 왔던 관계로 현존(現存) 무의식(巫儀式)에는 민속자료(民俗資料)뿐만 아니라 무가(巫歌) 무악(巫樂) 무무(巫舞) 무속연희(巫俗演戲) 등에 나타난 전통성(傳統性)이 강(強)한 무속예술자료(巫俗藝術資料)가 많이 전승(傳承)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調査研究)는 한국전통문화연구(韓國傳統文化研究)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분야(分野)라고 생각된다.

무의식(巫儀式)은 이와같은 전통성(傳統性)이 강(強)한 무속예술(巫俗藝術)이 수행(隨行)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研究)가 시급하지만 지금 세습무(世襲巫)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實情)이므로 조사대상(調査對象)으로 가치(價値)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보유자(技能保有者)가 지극히 희귀(稀貴)한 상태(狀態)이다.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지방(扶安地方)에는 많은 세습무(世襲巫)가 있어서 임석재(任哲宰)교수(教授)가 15년전(年前)인 1970년에 조사(調査)한 당시(當時)에는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줄포면(茁浦面)에 사는 박소녀(朴少女) (1912년생(年生)),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부안읍(扶安邑) 웅중리(甕中里)에 사는 성씨(成氏)(1905년생(年生)),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 사는 김씨(金氏)(1908년생(年生))와 같은 세습무(世襲巫)가 살아 있었고 전라북도(全羅北道) 정읍군(井邑郡)에 사는 신인국(申仁國)씨(氏)(1908년생(年生)), 고창군(高敞郡) 흥덕면(興德面)에 사는 편재준(片在俊)씨(氏)(1913년생(年生))와 같은 무악(巫樂) 기능(技能)을 보유(保有)한 껌이들이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작고(作故)하고 오직 박소녀(朴少女) 무당(巫堂)만이 줄포(茁浦)에 살고 있을 뿐이다.¹⁾

비록 박소녀(朴少女) 무당(巫堂)만이 생존(生存)하고 모두 작고(作故)한 현실(現實)이지만

이 지방(地方) 무의식(巫儀式)의 조사연구(調查研究)는 매우 중요(重要)하다고 판단되어 박소녀무당(朴少女巫堂)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의식(儀式) 무악(巫樂) 무무(巫舞)와 같은 무속예술(巫俗藝術)에 관한 것들을 현지(現地) 조사(調查)하였던 것을 간단히 보고(報告)하고자 하는 바이다.

2. 조사경위(調查經緯)

박소녀무당(朴少女巫堂)에 대한 조사(調查)는 1970년에 임석재교수(任皙宰教授)에 의하여 조사(調查)되었고 이 조사자료(調查資料)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조사보고서(調查報告書) 제(第)79호(號) 「줄포무가(茁浦巫歌)」라는 보고서(報告書)가 발간(發刊)되었으나 이 보고서(報告書)는 주(主)로 무가(巫歌)의 가사(歌詞)만을 채록(採錄)하였기 때문에 박소녀(朴少女)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무의식(巫儀式)의 절차(節次), 무가(巫歌)의 음악적(音樂的) 특징(特徵), 무악반주(巫樂伴奏)의 음악적(音樂的) 특징(特徵), 무무(巫舞)의 춤사위의 무용적 특징(舞蹈的特徵), 박소녀(朴少女)의 무속예술(巫俗藝術), 전승과정(傳承過程)에 대한 보고(報告)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예능민속연구실(藝能民俗研究室)에서는 1983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줄포면(茁浦面) 줄포리(茁浦里) 547번지(番地)에서 박소녀무당(朴少女巫堂)을 대상으로 현지조사(現地調查)를 실시(實施)하였고 1985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다시 현지(現地) 출장(出張)하여 무녀(巫女) 박소녀(朴少女)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기능중(技能中)에서 무속무용(巫俗舞蹈)의 정밀조사(精密調查)를 실시(實施)한 바 있다.

이 양차(兩次) 조사(調查)는 무의식(巫儀式)의 현장(現場) 관찰조사(觀察調查)가 아니고 박소녀(朴少女)와의 대담(對談)을 통한 조사(調查)와 박소녀(朴少女)가 시연(試演)으로 부르는 무가(巫歌)의 녹음조사(錄音調查), 박소녀(朴少女)가 시연(試演)으로 연주(演奏)한 무악(巫樂) 장단(長短)의 녹음조사(錄音調查), 박소녀(朴少女)가 시연(試演)으로 연행(演行)한 무무(巫舞)의 사진촬영조사(寫眞攝影調查)로 이루어진 것이다.

3. 박소녀(朴少女)의 무의식(巫儀式) 전승과정(傳承過程)

박소녀(朴少女)는 호적(戶籍)으로 1918년 4월 23일생(日生)이다.

실제 나이는 계축생(癸丑生)이며 음력 3월 23일이라 한다. 전라북도(全羅北道) 고창군(高敞郡) 성내면(城內面) 한림동에서 부친(父親) 박종원과 모친(母親) 이씨(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父親) 박씨(朴氏)는 세습무(世襲巫)로 장고를 잘 쳤고 판소리도 잘하였는데 줄도 탔고 판소리 북장단도 잘 했으며 대금 및 해금도 할줄 알아서 삼현육각(三絃六角)과 시나위를 연주(演奏)하였다고 한다.

28세때 딸 박소녀(朴少女)를 두었고 54세때 작고(作故)하였다 한다. 박소녀(朴少女)는 12세까지 모친(母親) 이씨(李氏)에게서 무의식(巫儀式)에 따른 여러 기술(技術)을 배웠고 14세때에 전라북도(全羅北道) 익산군(益山郡) 북일면(北一面) 참예리(參禮里)에 사는 송씨(宋氏)에게 출가(出家)하여 무업(巫業)을 하다가 32세에 송씨(宋氏)가 작고(作故)하였으므로 부안

1) 任皙宰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第79號 「茁浦巫歌」(文化財管理局, 1970. 12)

(扶安) 출포(茁浦)에 이사와서 무업(巫業)을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무업(巫業)이 한창 성행(盛行)하였을 때에는 피리잡이 신인국(申仁國), 대금잡이 편재준(片在俊), 장고잡이 김대봉(金大鳳), 장고잡이 신관용(申寬龍), 장고잡이 신관산(申寬山), 흥기표, 김성동과 같은 잡이를 데리고 무의식(巫儀式)을 행(行)하였으나 지금은 잡이들이 대부분 작고(作故)하였고 무의식(巫儀式)을 요청(要請)하는 이도 매우 드물어서 무업(巫業)을 거의 폐지(廢止)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는 부안지방(扶安地方)에서 큰 무당(巫堂)으로 꼽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무업(巫業)을 이어갈만한 후계자(後繼者)도 없는 실정(實情)이다.

4. 박소녀(朴少女)의 무의식(巫儀式) 절차(節次)

박소녀(朴少女)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무의식(巫儀式)에는 여러 가지 종류(種類)가 있으나 규모(規模)가 큰 무의식(巫儀式)에는 「도신」과 「씻김굿」이 있다.²⁾

도신은 가제(家祭)로 집안의 풍요(豐饒)와 자손(子孫)의 번창(繁昌)을 기원(祈願)하는 무의식(巫儀式)이며 부안지방(扶安地方)에서는 주로 정초(正初)에 행(行)하며 때로는 10월에 농사를 짓고 나서 행(行)하기도 한다. 농촌(農村)에서는 흔히 3년에 한번씩 집집마다 도신을 하였고 어업(漁業)에 종사(從事)하는 집집에서는 매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도신은 조왕굿, 철용굿, 조상굿, 지신석, 칠성풀이, 선왕석, 손님석, 장자풀이, 성주석, 제석, 중천맥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조왕은 일진에 따라서 약(略)하기도 한다. 조왕은 부역신(神)으로 부뚜막에서 굿을 한다. 부뚜막에 있는 큰 솔의 뚜껑을 뒤집어서 솔을 덮고 조그만 소반에 간단한 굿상을 차려 놓는데 말(斗)에 쌀을 가득 담아 올려 놓고 촛불을 켜서 쫓고 주인(主人)의 숟가락을 쫓고 그 위에다 무명실 타래를 이리 저리 얹어 놓는다. 또 조그만 종지에 부화수(浮化水)를 떠 얹어 놓고 돈도 놓는다. 무당이 흰 치마저고리로 평복(平服)을 입고 장고를 앞에 놓고 앉아서 손수 치며 무가(巫歌)를 부르는데 먼저 무당의 내력(來歷)과 굿하는 날짜와 굿하게 되는 내력(來歷)을 고하게 되고 조왕신을 청(請)하고 굿하는 집을 말하고 집안이 화평(和平)해 지기를 기원(祈願)한다.

철용굿은 집안의 터주신에게 기원(祈願)하는 굿으로 일명(一名) 「당산맛이」라고도 한다. 뒷걸의 터주에 간단한 제상(祭床)을 차려놓고 굿상 앞에 무당이 서서 굿을 한다. 무당은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쓰고 손에 경쇠나 또는 바라를 치고 무가(巫歌)를 부르는데 소규모로 할 때에는 악기(樂器)를 들지 않고 무가(巫歌)를 부른다. 무당이 무가(巫歌)를 부를 때에는 잡이들이 주변(周邊)에 둘러 앉아서 반주(伴奏)하는데 크게 할 때에는 징잡이, 장고잡이, 피리잡이, 대금잡이, 해금잡이가 동원되는 것이나 작게 할 때에는 징잡이와 장고잡이만 쓴다고 한다. 무당은 무가(巫歌)로 어느 집안에서 굿을 한다는 것을 고한 다음에 치국(治國)잡는 무가(巫歌)를 부르고 명당풀이를 부른 다음에 굿하는 주인택(主人宅)이 무사(無事)하고 자손(子孫)이 번창(繁昌)하도록 기원(祈願)하고나서 춤을 추고 다시 신(神)을 찬송(讚頌)하는 노래를 부르고 마친다.

조상(祖上)석은 조상(祖上)에게 집안을 잘 보살피 주심사하고 빌고 조상들이 왕생극락(往生極樂)하도록 기원(祈願)하는 굿이다. 안방이나 대청에 크게 제상(祭床)을 차리고 무당이 서서 굿을 한다. 무당은 붉은 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쓰고 손에 신칼을 들고 서서 무가(巫

2) 한국민속종합보고서(韓國民俗綜合報告書) 제(第)14책(冊)<무의식편(巫儀式篇)>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1983) pp.207~283.

歌)를 부르고 첩이들은 징잡고 피리, 젓대, 해금으로 반주(伴奏)를 한다. 먼저 조상님들을 청(請)하고 조상들이 왕생극락(往生極樂)하도록 염불(念佛)을 하고 신(神)을 찬송(讚頌)하는 노래를 부른다. 집안에 복(福)을 주고 명(命)을 주도록 조상신(祖上神)에게 기원(祈願)한다.

지신석은 오방신(五方神)에게 비는 곳이다. 대청에 차린 곳상 앞에 무당이 평복(平服)차림으로 장고를 앞에 놓고 손수치며 무가를 부르고 첩이들은 징, 피리, 대금, 해금으로 반주(伴奏)한다. 동(東)·서(西)·남(南)·북(北)·중앙(中央) 오방신(五方神)을 청(請)하는 무가(巫歌)를 부르고 이 오방신이 집안에 모든 세간을 마련하는 내력(來歷)을 무가(巫歌)로 부르고 크게 번창(繁昌)하도록 하여 주기를 기원(祈願)한다.

칠성(七星)풀이는 칠성신(七星神)에게 자손(子孫)의 명(命)과 복(福)을 비는 곳이다. 무당이 제상(祭床) 앞에 장고를 앞에 놓고 앉아서 혼자 한쪽 복판만 치며 무가(巫歌)를 부르는데 악사(樂士)들의 반주(伴奏)는 없다. 무당은 칠성신(七星神)이 태어나 인간(人間)을 제도(濟度)하게 되는 내력(來歷)을 길게 서술(敍述)하는 칠성신화(七星神話)의 서적무가(序的巫歌)를 부르고 나서 자손(子孫)들의 무병(無病)과 장수(長壽)와 삼재팔난(三災八難)을 피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명(命)과 복(福)을 기원(祈願)한다.

서낭석은 명산(名山)의 서낭신에게 가정(家庭)의 복(福)을 비는 곳이다. 무당이 평복(平服)으로 곳상(床) 앞에 앉아서 장고를 치면서 무가(巫歌)를 부르며 악사(樂士)들은 징, 피리, 대금, 해금으로 반주(伴奏)한다. 명도(名道) 명산(名山)의 서낭신을 청(請)하고 서낭신이 내려오는 내력(來歷)을 노래하고 서낭신이 굿하는 주인(主人)집의 농사(農事)를 잘 지어 주기를 기원(祈願)한다.

손님굿은 마마신에게 이 집안 자손(子孫)들이 병(病)없이 복(福)을 주고 잘 떠나도록 비는 곳이다. 무당이 평복(平服)차림으로 곳상 앞에 앉아서 장고를 손수치며 무가(巫歌)를 부르며 악사(樂士)들은 징, 피리, 대금, 해금으로 반주(伴奏)한다. 무당(巫堂)은 강남(江南)에 계신 손님신이 우리나라로 오는 내력을 무가(巫歌)로 부르고 주인택(主人宅)의 자손(子孫)에 병(病)이 없도록 보살피 주기를 기원한다.

장자풀이는 돈 많은 장자(長子)가 이승에서 공(功)을 쌓지 않고 악(惡)하게 지내다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閻羅大王)에게 문초(問招)를 받는다는 신화(神話)를 구송(口誦)하는 곳이다. 무당이 평복(平服)차림으로 곳상앞에 장고를 놓고 앉아서 한쪽 복판만을 치며 무가(巫歌)를 부르고 악사(樂士)들의 반주(伴奏)는 없다. 무당은 장자(長子)의 신화(神話)를 구송(口誦)하고 주인택(主人宅)의 액(厄)을 풀어주기를 기원(祈願)한다.

성주굿은 주택(住宅)과 가정(家庭)을 관장(管掌)하는 성주신에게 가정(家庭)의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하는 곳이다. 무당이 장삼(長衫)을 입고 고깔을 쓰고 신칼을 들고 무가(巫歌)를 부른다. 악사(樂士)들은 징, 장고, 해금, 대금으로 반주(伴奏)한다. 무당은 천지창조(天地創造)의 내력(來歷)과 우리나라 역대왕(歷代王)의 내력(來歷)을 무가(巫歌)로 부르고 우리나라 산세(山勢)를 명당(名堂)으로 풀이한 다음 굿하는 주인(主人)집의 집터를 명당(名堂)으로 그리는 무가(巫歌)를 부르고 지경닷기 무가(巫歌)와 성주신이 집을 짓는 신화(神話)를 무가로 부르고 여러번의 춤을 춘 다음에 성주신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굿하는 주인택(主人宅)의 명(命)과 복(福)을 점지해 주기를 기원한다.

제석굿은 제석신에게 자손(子孫)의 수명장수(壽命長壽)와 번창(繁昌)을 빌고 가정(家庭)의 번영(繁榮)을 비는 곳이다. 무당이 장삼(長衫)을 입고 고깔을 쓰고 손에 경쇠를 들고 치며 서서 무가(巫歌)를 부른다. 악사(樂士)들은 징, 장고, 피리, 대금, 해금으로 반주(伴奏)한다. 무당은 제석신이 인간(人間)을 제도(濟度)하게 되는 신화(神話)를 길게 무가(巫歌)로 부른

다음에 염불(念佛)을 부르고 노적들이기 무가(巫歌), 업들이기 무가(巫歌), 별감타령, 마름타령 무가(巫歌)를 부르고 당산철용을 들먹이고 복(福)을 비는 무가를 부른 다음에 제석신에게 집안의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하고 신(神)을 칭송(稱頌)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친다.

<살풀이 장단으로 장고, 징, 피리, 대금 합주(合奏)>

아웃이나 굿이야
오늘 이제나 에헤으
이제 이 석시나
다른 색이 아니오라
석가여래 생인지석이우 석이로구나
제석님의 분을 보세
제석님의 분을 본체 어데 분이더냐
해 돋은 디 달 돋은 디
아니되기가 본일테다
아흠 골 아흠 선비
세명<송경(松京)?> 서울 한양 서울
대과급제(大科及第) 보로 갔다
낙방(落榜)하야 오시는질로
수수더라 서시더라
제석님의 맞 딸 애기
인물 좋다 수시더라
얼국 좋다 수수더라
재견(才간(幹)) 없다 수수더라
얌전하고 수수기에
제석님의 상문전의
앞어 삼년(三年) 서서 삼년(三年) 누어 삼년(三年)
연 아흠 해 아무리 살고 나도
거름재 자취도 연신도 못보고
도로 돌아 오는 질을……

<중 타령 장단으로>

중 하나 내려 온다
중 하나 내려 온다
저 중으 거둥 봐라
저 중으 호사 보소
저 중으 치례 보소
엷고도 검은 치례 보소
검고도 엷은 중
칭암절벽 높은 산을 내리 굴러도

궁쿨러도 아니 깨지게 생긴 저 중
 흰 두리치 매친 송낙
 꼭 눌러 움복 씨고
 자령 가세 자령 가세
 배복 가세 배복 가세
 통영 가세를 어씩 미고
 염주는 목에 걸고
 담주는 팔에 걸고
 백지 도양 샘인년에
 광쇠는 손에 들고
 육환장을 둘러집고
 호늘거리 내려 온다
 <하략(下略)>



對談場面

대담장면(對談場面)

중천맥이는 굿청에 모인 잡신(雜神)들을 위로하고 먹여서 보내는 절차(節次)이다. 대문(大門)쪽에다가 굿상을 차려 놓고 굿에 쓴 지화(紙花) 등 여러 기물(器物)을 태우며 무당(巫堂)이 평복(平服)차림으로 서서 손에 신칼과 신대를 들고 무가(巫歌)를 부르고 악사(樂士)들은 뒤에서 반주(伴奏)를 한다. 무당(巫堂)은 모든 잡신(雜神)들을 청(請)하고 위로한 다음 잘 먹고 가라고 기원(祈願)하고 집안에 부정(不淨)한 일이 없도록 정화(淨化)시키는 무가(巫歌)를 부르고 모든 잡신(雜神)들이 잘 돌아 가도록 기원(祈願)하는 무가(巫歌)를 부르면서 마친다.

씻김굿은 죽은 영혼(靈魂)을 극락(極樂)에 천도(薦度)하는 굿인데 일명(一名) 오구굿이라 하며 망자(亡者)가 죽은지 일개월 이내(以內)에 하는 굿은 「진 씻김굿」이라 하고 죽은지 오래 되어서 하는 굿은 「마른 씻김」 또는 「묵은 씻김」이라 한다. 「진 씻김굿」은 성주굿, 조상해원굿, 연올리기, 오구물림, 고폘이, 소당개씻김, 길뒹기, 중천맥이로 구성(構成)되며 「묵은 씻김굿」은 조왕석, 철용석, 선조상, 지신석, 선광석, 칠성풀이, 손님석, 장자풀이, 성

주석, 조상석, 오구물림, 소당개씻김, 고틀이, 길땀기, 중천맥이로 구성(構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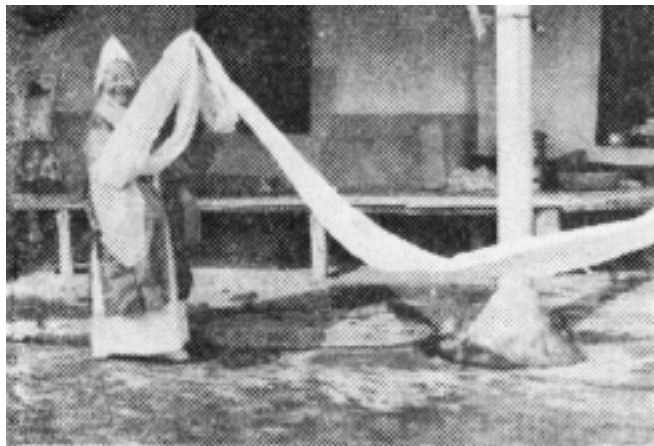
조왕석은 진셋김굿에는 하지않고 마른셋김굿에서는 하는데 그 절차는 도신의 조왕굿과 같다.

철용석, 지신석, 선왕석, 손님굿, 장자풀이, 성주석, 조상석들은 도신에서의 철용굿, 지신굿, 선왕석, 손님굿, 장자풀이, 성주석, 조상석과 같이 각각 그 절차(節次)가 같다.

오구풀이는 바리대기 신화(神話)와 저승의 일을 관장(管掌)하는 십왕(十王)의 내력(來歷)에 대한 서사무가(敍事巫歌)를 노래하고 망자(亡者)의 극락천도(極樂薦度)를 비는 굿으로 일명(一名) 「오구물림」, 또는 「시왕풀이」라고도 한다. 무당이 평복(平服)을 입고 쌀을 담은 그릇 앞에 장고를 놓고 앉아서 왼손에는 쌀에 묻어놓은 실 꾸리를 계속 감고 오른손으로는 장구를 치며 바리대기 무가(巫歌)를 부른다.

전올리기는 유족(遺族)의 머리 위에 얹어 놓은 넋전을 올려서 극락(極樂)의 길로 천도(薦度)하는 의식(儀式)이다. 무당이 평복(平服)차림으로 유족(遺族)앞에 서서 손에 신칼을 들고 유족(遺族)머리위에 올려 놓은 넋전을 문혀 올리면서 망자(亡者)가 유족(遺族)과의 인연을 잊고 저승에 가라고 무가를 부른다.

고풀이는 망자(亡者)가 이승에서 맺힌 한(恨)을 풀어 준다는 뜻으로 무명천에 매었던 고를 푸는 의식(儀式)이다. 무당이 평복(平服) 차림으로 큰 기둥에 맨 고 베의 한쪽 끝을 잡고 흔들며 무가(巫歌)를 부르면서 풀어 나간다.



고푸는 場面

고푸는 장면(場面)

길땀기는 망자(亡者)가 저승에 잘 건너가라는 뜻으로 굿청에 느리운 길베에 망자(亡者)를 상징(象徵)하는 유물(遺物)을 놓고 건너가게 하는 의식(儀式)이다. 굿청에 길베를 느리우고 무당이 평복(平服)차림으로 길베 위에 얹어있는 넋전, 망자옷 등을 잡고 이리 저리 옮기면서 저승에 가는 시늉을 하며 무가(巫歌)를 부른다. 먼저 시왕(十王)을 들먹이고 저승의 길을 닦는 노래를 부르고 이승에서 공(功)을 많이 쌓았다는 내력(來歷)과 망자(亡者)의 왕생극락(往生極樂)을 빌고 염불(念佛)을 한 다음 다시 망자(亡者)의 극락천도(極樂薦度)를 기원한다.

<길닦기 두가가사(巫歌歌詞)>

아왕 임아 굿이야
공심은 저라지요 남산은 본이로구나
조선은 국이요 팔만은 싸또연으
법은 정법이요 왕은 이씨 왕인디
대월(大月)은 설흔 날 소월(小月)은 이십구일(二十九日)
일상생기(一上生氣) 이중천의(二中天宜) 삼하절체(三下絕體) 사중유혼(四中遊魂)
오상화해(五上禍害) 육중복덕(六中福德) 칠하절명(七下絕命) 팔중귀혼(八中歸魂)
남생기(南生氣) 여복덕(女福德) 여생기(女生氣) 남복덕(南福德)
오늘날 해로 다녀서는 ××年 분합이요
달으 성수는 ×月 녹음방초 시절 인디 선영없는 자손있으며
자손없는 선영있으며
좌우(左右) 선영에 좌우(左右) 실령님네
제일전(第一殿)에 진광대왕(秦廣大王)
제이전(第二殿)에 초강대왕(初江大王)
제삼전(第三殿)에 송제대왕(宋帝大王)
제사전(第四殿)에 오관대왕(伍官大王)
제오전(第五殿)에 염라대왕(閻羅大王)
제육전(第六殿)에 변성대왕(變成大王)
제칠전(第七殿)에 태산대왕(泰山大王)
제팔전(第八殿)에 평등대왕(平等大王)
제구전(第九殿)에 도시대왕(都市大王)
제십전(第十殿)에 전륜대왕(轉輪大王)
왕(王)은 열시왕에 매웠던
집을 닦어 원을 풀어 해원 받아
염불로 길을 닦어
인간마다 생길 적으
석가여래 탄생허고
칠성전으 명을 빌어
저승왕으 약을 빌어
제석전으 복을 빌고
부친(父親)전으 빼를 빌고
모친(母親)전으 살을 빌어
천년윤기(千年倫氣) 오륜륜기(五倫倫氣) 부자유친(父子有親)
형제일신(兄第一身) 삼강오륜(三綱五倫) 인의예지(仁義禮智)으
삼종문법(三從文法)을 마련하시여
이싱 죄 저싱 죄
악도 악보는 제살허시고
전상으 지은 죄는 이세상으 손틈으 흑<토(土)>지듯
<하략(下略)>

소당개씻김은 망자(亡者)의 몸을 정(淨)하게 씻기어 극락(極樂)에 천도(薦度)한다는 뜻으로 망자(亡者)의 유물(遺物)을 씻는 의식(儀式)이다. 망자(亡者)의 옷을 놓고 돛자리로 둘둘 말아서 동이에 세워놓고 닦 씻기를 그위에 얹은 다음 그 위에 소당개(솔뚜껑)를 얹어 놓고 무당이 평복(平服) 차림으로 서서 무가(巫歌)를 부르며 신칼로 솔뚜껑을 치고 잽이들은 징, 장고, 피리, 해금을 들고서 반주(伴奏)를 한다. 죽은 망자(亡者)의 넋을 위로하고 시왕에게 왕생극락(往生極樂)을 빌은 다음 이승에서의 모든 인연을 잊고 왕생극락하기를 빌며 진언(眞言)을 치고 염불(念佛)을 하고 신(神)을 칭송(稱頌)하는 무가(巫歌)를 부른다.

중천맥이는 굿청에 모인 잡신(雜神)을 먹여 위로해 보내는 의식(儀式)으로 도신의 중천맥이와 같이한다.

위와 같이 부안지방(扶安地方)에 전승(傳承)되는 무의식(巫儀式)은 방대(龐大)한 의식구성(儀式構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이 공연(公演)될 계기(契機)를 거의 잃었다.

더구나 제석굿은 부안(扶安)에 사는 성씨(成氏)가 부르던 것인데 성씨(成氏)가 타계(他界)하였으니 부안지방(扶安地方) 무속(巫俗)에서 제석굿은 영원(永遠)히 그 전승(傳承)이 끊어지고 말았다. 박소녀(朴少女) 또한 고령으로 그의 기예능(技藝能)이 소멸(消滅)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예감(豫感)할 수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¹⁾

5. 박소녀(朴少女)의 무의식(巫儀式) 음악(音樂)

부안지방(扶安地方)의 무의식(巫儀式)에서 악사(樂士)들이 연주(演奏)하는 악기(樂器)에는 징, 장고, 피리, 대금, 해금이 있고 이밖에 무당이 손수 연주(演奏)하는 악기(樂器)에는 경쇠, 바라 등이 있다고 한다. 지금 부안지방(扶安地方)에는 잽이들이 모두 작고(作故)하거나 다른 지방(地方)으로 이도(移徙)하여 무업(巫業)에 종사하는 잽이들이 없으므로 지금은 무의식(巫儀式)에서 쓰이는 피리, 대금, 해금은 현지(現地)에서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다만 징과 장고는 박소녀(朴少女) 무당이 소지(所持)하고 있어서 조사(調查)할 수 있었다. 장고는 농악(農樂)에서 쓰이는 장고와 같다. 왼손은 궁글채를 들고 치며 오른손에는 열채를 들고 친다.

징은 농악(農樂)에서 쓰는 징과 같은 것으로 징의 연주법(演奏法)은 끈을 들고 치는 것이 아니고 전 안에 왼손으로 징을 받쳐들고 오른손으로 징채를 잡고 친다. 부안지방(扶安地方) 무의식(巫儀式)에서 불리워지는 무가(巫歌)의 장단(長短)에는 살푸리, 앓은반, 외장고, 덩덕궁이, 신임장단, 염불장단 등이 쓰인다고 한다.³⁾

살푸리는 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으며 부안지방 무가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장단이라고 한다.

앓은반은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다.

외장고는 일정한 박자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덩덕궁이는 8분의 12박지이며 박소녀(朴少女)는 원덩덕궁이와 반덩덕궁이가 있으며 원덩덕궁이보다 반덩덕궁이는 더욱 빠르다고 말한다.

신임장단은 판소리에서 쓰이는 엇모리장단과 같다고 한다.

염불장단은 나무아미타불하고 염불을 불을 때 쓰이는 장단이며 느린 장단이 긴염불과 빠른 장단인 자진염불이 있는데 긴염불은 판소리의 중모리장단과 같으며 자진염불은 판소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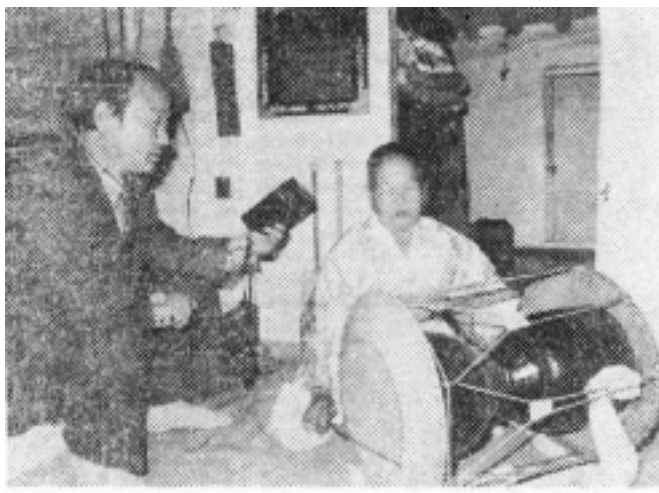
3) 이보형(李轉亨) 「무악장단고(巫樂長短考)」 문화인류학(文化人類學) 제(第)3집(輯) 한국문화인류학(韓國文化人類學會) 1970) pp.33~47

중중 모리장단과 같다고 한다.

박소녀(朴少女)는 이 모든 장단(長短)을 손수치며 무가(巫歌)를 부를 수 있으므로 무가(巫歌) 장단(長短)의 음악적(音樂的) 특징(特徵)을 쉽게 조사(調查)할 수 있었다. 다만 살풀이장단은 본래 무당이 치는 것이 아니고 껌이들이 치는 장단이므로 살풀이장단을 치면서 무가(巫歌)를 부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것은 무가의 악절(樂節)은 불규칙(不規則)하게 되어 있으나 장단(長短)은 규칙적(規則的)으로 되어 있어서 무가의 악절(樂節)과 장단(長短)의 악절(樂節)이 일치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소녀(朴少女)가 부른 무가(巫歌)의 선율(旋律)은 모두 남도민요조(南道民謠調) 선율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박소녀(朴少女)는 아직 가창능력(歌唱能力)이 있어서 살풀이 무가(巫歌), 안진반 무가(巫歌), 외장구 무가(巫歌), 신임 무가(巫歌), 덩덕궁이 무가(巫歌)를 두루 부를 수 있지만 그가 작고(作故)하면 그와 같이 완벽한 부안지방(扶安地方) 무가(巫歌)를 가창(歌唱)할 보유자(保有者)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朴少女巫歌 實演場面

박소녀무가(朴少女巫歌) 실연장면(實演場面)

6. 박소녀(朴少女)의 무의식(巫儀式) 무용(舞踊)

박소녀(朴少女)가 추는 무의식(巫儀式) 무용(舞踊)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조상석에서 추는 춤은 신칼을 들고 추며 제석곳에서는 장삼자락의 춤이며 철용곳에서는 바라춤이며 고폘이에서 추는 춤은 고를 들고 추는 춤이며 녀올리기에서 추는 춤은 녀전춤이라 한다.

이런 춤들은 신임장단이나 덩덕궁이 장단으로 춘다고 한다.⁴⁾

박소녀(朴少女)가 추는 무의식(巫儀式) 무용(舞踊)에 나타난 춤사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병호교수(鄭炳浩教授)에 의하면 고개돌림, 까치걸음, 양손쳐올리기, 뒤집고 엎어뿌림, 꽃봉

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제(第)14집(輯) <무의식편(巫儀式篇)>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1983) pp. 207~283

오리, 어깨걸치기, 회무(回舞) 등이 있다고 한다.

고개돌림은 양손을 옆으로 펴 나아가는 춤사위라고 한다.

까치걸음은 박과 박사이를 자진걸음으로 걸어가는 춤사위를 말한다.

양손쳐올리기는 양손을 몸 앞에 들고 위 아래로 흔드는 춤사위이다.

뿌림사위는 양손 바닥을 엮어서 뿌리는 춤사위이다.

꽃봉우리사위는 머리 위로 양손을 올려서 둥글게 하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정지하고 어르는 춤사위이다.

어깨걸치기사위는 머리 위로 양손을 올려서 둥글게 하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정지하고 어르는 춤사위이다.

어깨걸치기사위는 손을 어깨에 걸치는 춤사위이다.

좌우치기는 양손을 좌우(左右)로 흔드는 춤사위이다.

8자돌리기는 손을 휘둘러 원을 그리며 아라비아 숫자 8자로 휘젓는 춤사위이다.

손목돌리기는 두 손목을 몇번씩 빨리 휘돌리는 춤사위이다.

회무(回舞)는 양손을 옆으로 벌린채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춤사위이다.



무무(巫舞) 실연장면(實演場面)

박소녀(朴少女)는 지금도 무의식(巫儀式) 무용(舞踊)을 능히 연행(演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춤사위들을 교묘(巧妙)하게 구성(構成)하여 실연(實演)하고 있다. 이러한 춤사위는 무용(舞踊) 전문가(專門家)들이 추는 살풀이춤과 비슷하나 매우 소박하고 간결한 것을 볼 수 있어 살풀이춤의 원형(原形)을 고찰(考察)할 수 있었다.

살풀이춤의 원형(原形)으로 그리고 부안지방(扶安地方)의 향토무용(鄕土舞踊)의 원형으로 박소녀(朴少女)의 춤은 중요(重要)한 가치(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무무(巫舞) 실연장면(實演場面)

7. 결론(結論)

부안군(扶安郡) 줄포지방(茁浦地方)에 유일(有一)하게 남아 있는 세습무(世襲巫) 박소녀(朴少女)는 도신, 셋김굿의 모든 무의식(巫儀式)을 보유(保有)하고 있고 또 살풀이, 안진반, 외장구, 덩덕궁이, 신임장단 등 모든 무가(巫歌)를 가창(歌唱)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으며 신칼춤, 장삼춤, 바라춤, 고풀이춤, 뉘전춤 등 여러 무무(巫舞)를 연행(演行)할 능력(能力)도 있으며 또 이런 춤에서 보이는 까치걸음, 손쳐들기, 엮어뿌리기, 어깨치기, 좌우(左右)치기, 회무(回舞), 그밖에 여러 춤사위를 구사할 수 있다.

박소녀(朴少女)가 동업(同業)하였던 무당(巫堂)과 짝이들이 모두 타계(他界)하여서 짝이 없이는 무업(巫業)을 할 수 없으므로 그는 무업(巫業)을 폐지(廢止)하고 있는 실정(實情)이지만 만일 박소녀(朴少女)마저 유고시(有故時)에는 부안지방(扶安地方)에서 제일(第一) 뛰어난 무당(巫堂)으로 치던 무의식(巫儀式) 보유자(保有者)의 기예능(技藝能)이 모두 인멸(湮滅)될 위기(危機)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부안군(扶安郡) 위도(嵎島)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第)82호(號)로 지정(指定)되어 있는 풍어제중(豐漁祭中) 위도(嵎島) 띠벳놀이 보유자(保有者) 조금례(趙金禮) 무당(巫堂)이 있으나 그는 무의식(巫儀式) 전반(全般)에 대한 기능(技能)이 박소녀(朴少女)무당(巫堂)과 비교(比較)가 된다는 것이 부안(扶安)사람들의 평이고 또 만약 상기(上記) 보유자(保有者) 또한 무업(巫業)의 전수(傳授)에 철저하지 않다면 박소녀(朴少女)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부안지방(扶安地方) 무의식(巫儀式)의 기예능(技藝能)의 전승(傳承)을 위한 조치가 있었으면 천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 ×

이제 필자(筆者)는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그곳 부안(扶安)을 다시 찾아가 무녀(巫女) 박소녀(朴少女)와 자리를 함께하여 그의 전생애(全生涯)에 대하여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그녀(女)의 무속예술(巫俗藝術)에 대하여 좀더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女)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무속기예능(巫俗技藝能)을 가능한한 기록(記錄)으로라도 더 많이 남겨두고 싶다.